



## 겨울방학과 성형수술



이덕주

이덕주 성형외과

겨울방학 중 대학입시가 끝나가면 대학 초년생들이 부모와 함께 상담을 하러 오는 일이 많아진다. 흔히 입시에 모든 것을 걸고 매진하다가 합격하고 나면, 기념으로 본인이 원했던 성형수술(흔히 눈, 코에 국한되지만)을 하기 위함인데 입시의 중압감이 얼마나 컸으면 마치 입학시험 치는 수고를 보상받듯이 하는 것이다.

작년 연말, 미국 언론에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성형수술의 티켓을 부부나 애인에게 선물하는 것이 유행이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그 내면을 보면 (애인의 유방성형, 부인의 지방제거수술 등 다양한데) 한쪽 편만의 욕구가 강하면 후일 애인이 바뀌는 수가 많다는 것이다.

수술을 해 주고자 하는 사람과 수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부족하면 수술 후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더구나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지금까지 강요받은(?) 입시 공부에 치어 자기의 표현에 미약하거나 미에 대한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를 간혹 볼 수 있는데 본인의 의사가 수술 계획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후일 불만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에게 있어 가장 난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알아서 해주세요”이다. 상담자의 입장에서는 의사가 많은 환자를 시술해 왔고 수술 후의 변화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겠지만 이러면 객관적인 미의 기준에 약간의 의사의 미적 개념이 첨가되어 수술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대화의 창이 열리면 지금 말하십시오.  
입시에 쫓겨 대화가 없었다면 지금 이야기해 봅시다.”

시술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성형수술은 화장을 고치듯 유행에 따라 매번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하루는 대학교 3학년 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상담을 하러 왔었다. 쌍꺼풀을 원하는 딸의 딸은 “금방 자연스러운 눈으로 해 주세요”하는 것이고 어머니는 오래 지나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피부가 늘어지고 해서 쌍꺼풀 라인이 다소 내려오고 속쌍꺼풀처럼 될 수도 있으니 다소간 어색하더라도 후일 다시 손대는 일이 없도록 쌍꺼풀 라인을 약간 크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며 서로간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금방 자연스러운 것을 원하고 만일 나중에 라인이 낮아지면 늘어진 부분만 쉽게 제거할 수 있으므로 큰 문제가 안되지만, 처음부터 후일 늘어질 것을 생각하며 높게 라인을 설정한 뒤 마음이 바뀌어 어색하다고 낮게 하려고 수정을 원하면 높은 라인을 낮추는 것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한 뒤 라인을 어느 쪽에 맞추어야 할 것인지 결정하여 오라고 하였다.

며칠 후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딸의 의견에 맞추어 수술하게 되었고 환자는 수술 후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수술 전 마음의 확고한 결정만큼 수술 후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 수술 전 입시로 인해 대화가 부족했다면 수술을 계기로 딸과 어머니간에 진지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최근 어느 책에서 본 글을 약간 고쳐본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런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중략-  
대화의 창이 열리면 지금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입시에 쫓겨 대화가 없었다면 지금 이야기해 봅시다. ㉞